

도가 - 도리와 덕성

노자 상편 - [도경]

[제1장]

道可道非常道：

도를 도라 말하면 그 말하여진 도는 더이상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 속뜻은 세상만물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10년 후의 나가 다르듯이 세상만물은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도를 도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 도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칭한 도와 지금의 도는 다르다는 뜻이지요

과거 서양철학자 플라톤은 세상만물이 이렇듯 변하기 때문에 모두 가짜라고 했습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만이 진짜라고 한거고 그러한 진짜들만 모여있는 세상을 이데아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노자는 세상만물이 변하는 것을 진짜라 여겼습니다. 변하면 변하는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名可名非常名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故常無欲以觀其妙

常有欲以觀其徼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제25장]

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不改

周行以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強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하편] - [덕경]

[제38장]

上德不德 是以有德

下德不失德 是以無德

上德無爲而無以爲

下德爲之而有以爲

上仁爲之而無以爲

上義爲之而有以爲

上禮爲之而莫之應 則攘臂而仍之

(攘:물리칠, 제거할 양 , 臂: 팔 비 , 仍 : 인할, 거듭 잉)

故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夫禮者 忠信之薄而亂之首也

前識者 道之華而愚之始也

是以大丈夫處其厚 不處其薄

居其實 不居其華

故去彼取此

[제81장]

信言不美 美言不信

善者不辨 辯者不善

知者不薄 薄者不知

聖人不積

既以爲人己愈有 (愈 : 나을 유 , 점점 더)

既以與人己愈多

天之道 利而不害

聖人之道 爲而不爭

공자

吳十有五而志于學 (于 : 행하다, 어조사)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君子去仁 惡乎成名 (惡 : 어찌 오, 미워할 오)

君子 無終食之間違仁

造次 必於是

顛沛 必於是 (顛 : 꼭대기 전, 넘어질 전,沛 : 늘 패, 성대한 모양)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譬 : 비유할 비, 깨우치다 비, 謂 : 일컬을 위)

克己復禮爲仁